

성은지

현대무용



일시 : 1989. 11. 13 (월) 저녁 7시
장소 : 부산문화회관
후원 : 부산예술고등학교·부산일보
MBC부산문화방송·국제신문



1 부

Accumulation (누적)

- 음악 : 하순봉
- 춤 : 성은지
- 연주 : Piano 하순봉
Trumpet 이병섭
Clarinet 최승호
Percussion 김현숙
박태신
김수정

오보에, 현악기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D단조 B.W.V1059
• 음악: J. S. Bach

• 춤: 박남주 이정금
염지연 이가현
홍경민 윤미정
한임숙 장이숙
정수영 조분경
정지윤 허현주

즉흥환상곡

• 음악: Chopin
• 춤: 성은지 정광국

꿈에 본 환상

• 음악: Vangelis
• 춤: 김영옥 박남주
정광국 정지윤
염지연 이가현
이정금 박지수
이희정 송영희
장이숙 정주연
지영경 한임숙
홍경민 정수영
권경화 허현주
윤미정 이승대
조분경



흐느적 거리는 날

오 둥근 욕망이여
오 붉은 쾌락이여
그 강물은 피
그 시간은 지났다.

사랑은 나를 좋아하여
사랑은 신을 벗고 소파에 앉는다.
사랑은 뒤통에 어울리고
사랑은 부드럽게 미소짓고...다리를 꼬고
그래 바로 이거야

잔다
잔다
잔다...허공에 떠서
잔다...말을 한다
잔다...길을 잃고
잔다...모두 내뱉는다

우리는 오랜 친구
나는 사랑으로 맥주를 권하고
사랑은 텔레비전을 본다
사랑은 목욕도 해야 되고
사랑은 면도도 해야 한다
사랑은 의자에서 쿨러내려 바닥에서 깔깔대다
뛰어 일어난다
나는 사랑을 보고 웃는다

나를 마신다
나를 마신다
나를 마신다
나를 마신다

운전한다...왜 묻지?
숨는다...밤은 조용하다
운전한다...너무나 멀다
잠잔다...우리 생각 보다는

흐느적거리는 날에는
육지 여행이 어려우니
떨어, 짐으로 날아가
귀를 막아라.

망각

한 남자 빗소리에 잠을 깬다
그의 방을 지나가던
그의 연인들 꿈에서 깬다

흐리게 그려진 연인들은
잊혀진다, 뚜렷하지 않다
지나가는 이 연인들은 그의 방을 지나친다.

그 남자는 이제 깨어났고
다시 잠들 수 없다
그래서 이런말들을
계속 끝없이 반복한다
용기, 친절, 명확
정직, 정열, 관용
용기, 정직, 위엄
명확, 친절, 정열



2 부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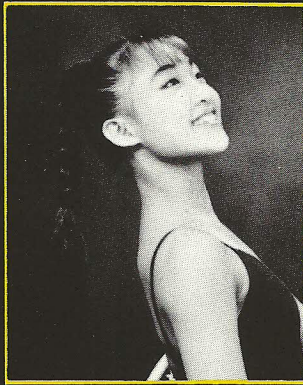
흐느적거리는 날들(Liquid Days)

• 음악 : Philip Glass

• 춤 : 성은지 김영욱 박남주
이정금 정광국 정지윤
송영희 염지연 이가현
이승대 한임숙 허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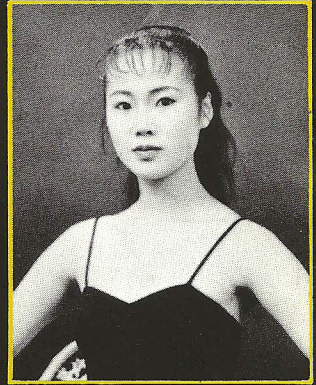
출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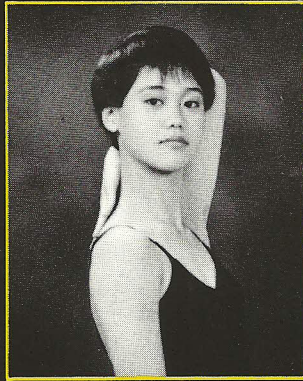
장이숙



윤미정



박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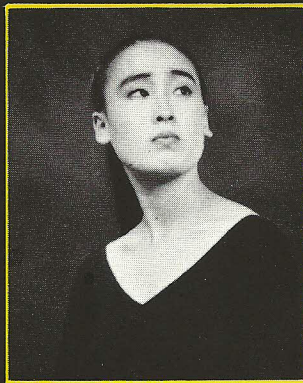
허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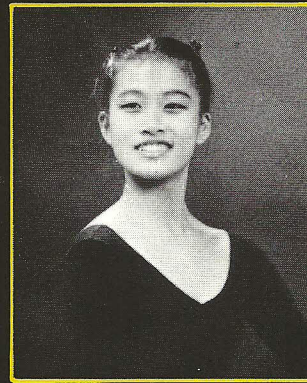
한임숙



정지윤



이정금



조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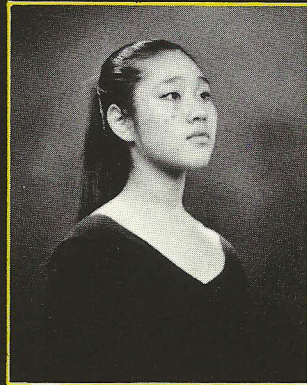
지영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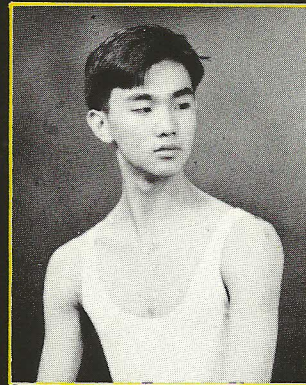
정주연



이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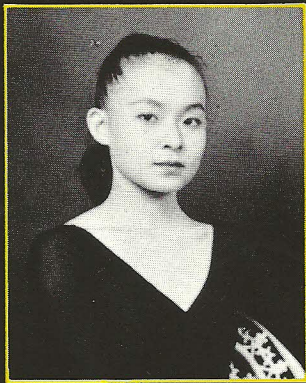
정수영



이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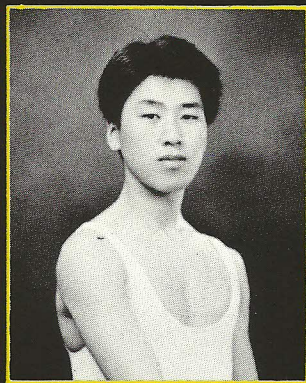
송영희



홍경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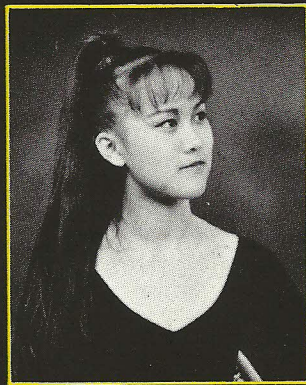
엄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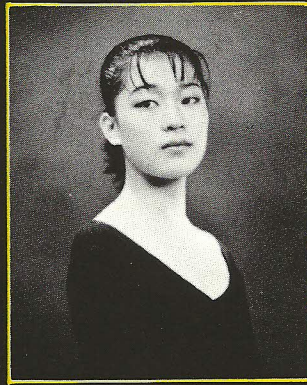
정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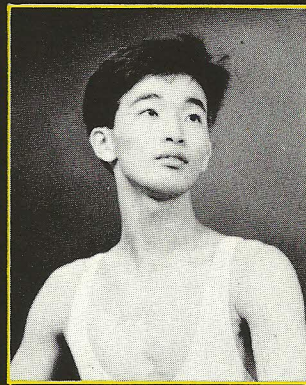
이가현



박지수



권경화



김영욱